

사회

“악마를 사형시켜라” 흥분한 시민들

고종석 현장검증...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꼬” 탄식

“그 어린 것을...”

지난 1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 일원에서 진행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현장.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인 고종석(23)은 악마로 변해 저질렀던 지난 30일 당시의 범행 상황들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그는 시종일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얼굴을 꼭 숙였다.

또 경찰의 질문에는 “네, 아니요. 맞습니다” 등으로 짧게 답했다. 고종석이 피해자 A(7)양의 어머니를 만난 PC방에서 현장 검증이 시작됐다. 이후 80m 가량 떨어진 A양의 집에서

로 향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를 이불째 낚치하는 상황을 거리낌없이 연출했다.

이어 그는 A양을 성폭행한 뒤 버리고 달아났던, 300m 거리의 영산강 한 다리 밑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던 날 새벽 A양에게 약 40분간 저질렀던 몸설 행동들을 5분 동안 차분하게 그려냈다. 잔인한 범행 수법에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모(여·45)씨는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며 “어리디 어린것이 깜깜하고 어두운 새벽에 이런

음침한 곳에서 10시간 동안 떨었을 것을 생각하니 내가 다 속이 터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현장검증을 꼭 지켜보던 3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은 고종석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장검증을 마치자 “얼굴을 공개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은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모(여·58)씨는 “저런 놈은 전자발차를 차고도 사람을 죽일 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인권 타령하지 말고, 얼굴을 당장 만천하에 공개하고, 즉시 사형시켜라”고 고성을 질렀다.

또 일부 시민들은 골목길과 으스스한 장소가 많은 영산포 지역의 치안 대책이 평소에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두 딸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주민은 “범인이 초등학생을 끌고 지나간 골목길을 포함해 이 일대가 밤만 되면 항상 어두컴컴한데, CCTV가 단 한대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순찰차가 24시간 순찰을 하는 데도, 10시간 동안 방치된 초등학생을 못 찾았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가운데 검은색 모자)이 지난 1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 피해자 A(7)양의 집에서 A양을 이불에 감싸 납치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 상습 유포 60명 적발

광주경찰, 10대도 3명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차례 이상 반복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까지 있다. 10대도 3명이나 포함됐다. 60명 가운데는 20대가 가장 많은 22명으로 37%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19명

(32%), 40대 15명(25%), 10대 3명(5%), 50대 1명(1%) 순이었다. 경찰은 단순 유포자일 경우 불구속 직접 제작한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구제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 범행을 모의한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어 23건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제를 요청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진을 유포한 50명을 검거해 음란물 1200여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직 경찰이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서부경찰, 강간 미수 입건... 해당경찰 “의도 없었다”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30) 경사를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B(여·39)씨를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곧장 도주하다가 B씨의 일행에게 붙잡혀 부부경찰서 소속 A(30) 경사를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고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입을 막아 밀친 뒤 화장실을 뛰어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000만원 수송 '007 가방' 빼앗아 도주
여수경찰, 30대 2명 체포
여수경찰은 지난 1일 현금 수송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36)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태풍 피해 복구 공공근로
승용차 덮쳐 2명 사망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하던 공공근로자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통합진보 대리투표 의혹 1900명 조사
광주지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의혹과 관련, 광주지검이 1900여명의 투표 참여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태풍피해 확인 집주인 '주거침입' 고소
상다발
태풍피해 확인을 위해 세입자 등의 없이 세입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고소당해 결과가 주목.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평가 방법
4. 신청 방법
5. 유의사항
6. 문의처